

오픈뱅킹·체크카드·육류대출… 저축은행, 수익 다각화

SBI저축은행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 출시

JT친애·웰컴저축은행

브랜드이미지 각인 체크카드 선봬

한국투자저축은행

단기소액대출 타깃 육류담보 대출

저축은행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거 영업점 중심의 여·수신 영업에서 벗어나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모바일 플랫폼인 '사이다뱅크'를 출시했다. 사용자 중심의 UX·UI를 적용해 편리성을 강화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유일하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이제, 예·적금 가입 및 대출신청과 송금까지 모든 금융서비스를 간편인증 하나로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출범과 함께 선보인 입출금통장, 복리자유적금 등 수신



SBI가 지난 24일 출시한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



JT친애저축은행 '썸파팝 체크카드' /친애저축은행

상품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혜택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3일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오픈뱅킹 플랫폼이 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수신 상품의 금리가 높아 금융 혜택에 민감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

고 말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반려견 캐릭터인 '썸피'를 활용한 저축은행 체크카드인 '썸파팝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기존 저축은행 중앙회가 GS리테일과 제휴해 출시한 'SB 팝 체크카드'를 JT친애저축은행이 7월부터 발행하면서, J트러스트그룹의 브랜드 캐릭터 디자인을 넣어 새롭게 선보였다. 고객에게 보다 다양

한 금융상품군을 제공하고, 자사의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웰컴저축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웰뱅 체크카드' 또한 웰컴저축은행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기존의 카드 이미지를 모노톤으로 바꿔 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여성 고객들의 카드 발급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최근 육류담보 대출을 개시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 유통업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냉동 육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단기 소액대출 고객을 주 타깃층으로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에 쏠린 수익 구조를 점차 다각화 해나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당장의 수익 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업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영업점 중심의 여·수신 수익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향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우리금융, 3조 '혁신성장펀드' 출범

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참여
매년 500개 이상 기업에 투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우리금융그룹은 혁신성장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를 목적으로 3조원 규모의 '우리혁신성장펀드'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1호 우리혁신성장펀드 출범을 시작으로 2020년 2호, 2021년 3호 펀드에 각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하위펀드의 선정과 모집을 통해 매년 1조원씩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혁신성장펀드에는 우리은행이 앱커투자자로, 우리종합금융과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등 그룹사가 펀드투자자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1호 펀드에는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도 참여했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이 본

펀드를 운용하며, 정책출자기관의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운용사를 중심으로 하위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성된 펀드는 매년 약 500개 이상의 혁신성장기업에 투자된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우리혁신성장펀드 ▲정책출자기관 매칭펀드 참여 ▲혁신성장기업 직접투자 등은행 IB그룹을 중심으로 '혁신성장투자 3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홍민영 기자

조용병 “꿈 포기 말고 글로벌 D.N.A 가져라”

(Dream . Navigation. Agile)

신한희망재단, 베트남서 멘토링 특강

신한희망재단은 3일 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도전하는 청년에게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조용병 이사장이 '멘토링 인 베트남(In Vietnam)'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전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희망사회 프로젝트 사업 중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Global Young Challenger·GYC)'의 일환이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GYC 연수생을 포함 100여 명의 청년에게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선별해 국내외 연수를 통해 이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 매칭까지 모든 과정을



신한희망재단은 3일 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도전하는 청년에게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조용병 이사장이 '찾아가는 멘토링 인 베트남(in Vietnam)'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이사장(앞줄 가운데)과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연수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희망재단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신한두드림스페이스, 디지털라이프스쿨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조 이사장의 깜짝 제안으로 마련됐다.

조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기회의

땅에서 꿈(Dream)을 크게 꾸고 포기하지 않으며, 명확한 방향(Navigation)으로 꾸준히 정진하고 기회의 순간 민첩한 행동(Agile)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D.N.A를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생명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상품은 부모의 니즈를 반영한 성장장애(특정감상선·뇌하수체기능저하증) 2종과 학습장애·마음건강·입원·심질환 관련 위험률 4종을 신규 개발했다.

해당 상품은 출생 이후 자녀 성장을 지켜주는 다양한 보장이 장점으로 학자금·연금특약 가입으로 대학학자금, 졸업기념금에 더해 연금 활용도 가능하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1만건을 판매됐다.

자녀의 성장연령에 따라 최적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보험에 총 57개의 다양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중 47개는 보험료 변동 없는 비갱신 특약이다.

/김희주 기자 h89@

1분기 금융민원 2만건 육박… 금융투자 민원 급증

올해 1분기 금융민원이 2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투자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융민원은 1만92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및 보험 관련 민원은 줄은 반면 금융투자 민원은 크게 늘었다.

비중 기준으로는 보험민원이 61.3% (생보 25.0%, 손보 36.3%)로 가장 높고 ▲비은행 21.6% ▲은행 11.9% ▲금융투자 5.2% 등의 순이다.

은행 민원은 22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여신',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지만 '인터넷·폰뱅킹',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은 소폭 증가했다.

비은행 민원은 41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민원건수는 신용카드사 비중이 36.1%로 가장 커졌으며, 대부업자와 신용정보사가 각각 17.1%, 15.4%를 차지했다. 할부금융사에 대한 민원 증가폭이 커으며, 대부업과 저축은행 민원은 감소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48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 관련

유형의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70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보험금 산정·지급, 계약의 성립·해지 등 대부분 유형에서 민원이 줄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9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급증했다. 증권 관련 ▲내부 통제·전산 ▲주식매매 ▲발행·유통시장 공시 등의 유형에서 민원이 늘었다.

민원 처리건수는 1만8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6361건으로 18.9% 늘었다.

/안상미 기자